

내러티브 1

2026. 04. 06 교생실습 1일차

교생실습 첫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척 설레고 떨렸다. 첫날부터 혹시라도 지각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실습학교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동네와 익숙한 학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 내가 알고 있던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학생이 아닌 예비교사의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고, 내가 이제는 배우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침을 준비해야 하는 위치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학교의 풍경도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기대감도 컸다.

담당교사이신 네일 담당 이항 선생님께서는 첫인상부터 매우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다. 처음 실습을 시작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긴장이 조금씩 풀릴 수 있었다. 좋은 지도교사를 만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또한 함께 실습하게 될 실습 동기들도 밝고 착한 모습이어서 금세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서로 처음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함께 의지하며 실습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좋은 선생님과 좋은 동기들을 만난 것을 보며, 이번 교생실습은 나에게 참 운이 따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여러 어려움과 떨림이 있겠지만, 오늘 느낀 초심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 하루 성실하게 배우고 성장해 가고 싶다. 이번 실습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나를 더 단단한 예비교사로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내러티브 2

2026. 04. 10 교생실습 5일차

교생실습을 시작한 지 어느덧 1주일이 되었다.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벌써 1주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일의 시간이었지만,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과 어색함에 비하면 지금은 학교의 분위기에 많이 익숙해졌고 학생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다.

처음에는 어떤 말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편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오늘은 담당교사께서 ‘주간 마감 나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라포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 실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오늘 가장 많이 떠올랐던 질문은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였다. 학생들을 단순히 통제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가지거나 분명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당장 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교사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함께 찾고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학생들에게 막연한 꿈만 말해주는 교사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번 1주일의 경험은 나에게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의 말과 태도가 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교생실습 1주차를 마무리하며,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교사라는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실천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싶다.

내러티브 3

2026. 04. 13 교생실습 6일차

오늘은 처음으로 조례와 종례를 맡아 직접 진행해 본 날이었다. 그동안 수업을 참관하거나 부분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학생들 앞에 서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끄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는 일이었다.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분주했고, 순서를 여러 번 떠올리면서도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막상 교실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학생들과 담당 교사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하얘졌고, 준비했던 말도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잠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라고들 하지만, 나이 마흔이 넘어 이렇게 긴장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긴장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학생들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몇몇 학생들은 웃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에 긴장 속에서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나도 다시 용기를 내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조례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이 들었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에게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외쳤고, 그 말은 학생들에게 건네는 응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이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교실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내러티브 4

2026. 04. 17. 교생실습 10일차

오늘 드디어 수업 시연 날짜를 안내받았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날짜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아직 수업 자료도 완성되지 않았고, 수업 흐름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벌써?”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교생실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편한 날을 정하면 된다고 하셨다. 다만 수업 시연이 하루에만 몰리지 않도록 조율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3명의 실습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의 일정을 상의하며 날짜를 잡게 되었다. 사실 날짜만 정하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고 걱정이 앞섰다. 아직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시연 날짜를 정하는 과정일 뿐인데도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되었다.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수업 시연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났다. 그동안은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시간이 조금 더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다. 수업 자료는 완성되지 않았고, 내가 학생들 앞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다. 머릿속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괜히 교직을 시작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처음 교직을 선택할 때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교생실습을 하며 실제 학교 현장을 경험하고, 수업 시연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보니 생각보다 부담감이 컸다. 책임감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고,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내러티브 5

2026. 04. 24. 교생실습 15일차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평소 교육을 통해서만 듣고, 뉴스나 TV에서만 보았던 '학교폭력'의 실제 피해 사례를 직접 전해 듣게 되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한 아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그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왔다. 단순히 친구들과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력과 상처로 인해 한 아이의 마음과 정신까지 아프게 만든 일이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졌고,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한 시간가량을 오열하였다.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공간인데,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상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그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현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단순히 그 순간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내러티브 6

2026. 04. 27. 교생실습 16일차

미용 수업 시연을 앞두고 5월 30일 금요일에 진행할 수업을 미리 연습해 보았다. 처음에는 내가 준비한 자료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업 자료도 어느 정도 준비했고, 머릿속으로는 수업 흐름을 여러 번 떠올려 보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앞에 서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이 떨렸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학생들 앞에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순간 순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는 것이 수업을 하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다. 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연습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내가 충분히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습을 해 보니 수업은 단순히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설명의 속도나 방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느꼈다. 내가 긴장한 탓에 말이 빨라지거나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수업에서는 더 차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습을 통해 수업 시연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수업 내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전개, 정리의 흐름을 충분히 익히고, 예상 질문이나 학생들의 반응까지 미리 생각해 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과 충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이번 연습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긴장하는지, 어떤 설명이 부족한지, 수업 흐름 중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실패처럼 느껴졌던 연습이 오히려 실제 수업 시연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은 시간 동안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설명할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습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는 예비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부족함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실제 수업 시연에서는 오늘의 떨림과 아쉬움을 발판 삼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 앞으로도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방법과 학생들의 이해까지 함께 고려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다.

내러티브 7

2026. 04. 29. 교생실습 18일차

오늘은 교생실습 동기의 수업 시연이 있었다. 동기의 수업을 참관하는 내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였다. 분명 함께 준비해 온 동기의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동기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장 내일이 나의 수업 시연일이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수업을 보는 동안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걱정과 긴장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

동기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수업 흐름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제 수업 시연을 눈앞에서 보니 두려움이 더 커졌다. 학생들 앞에 서서 설명하고, 활동을 이끌고, 분위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느껴졌다.

교사는 단순히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느꼈다. 그래서인지 오늘 동기의 수업 시연은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나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수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하기보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오늘 느낀 무거운 마음도 결국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의 수업 시연이 걱정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나 자신을 믿어 보고 싶다. 긴장되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내러티브 8

2026. 04. 27. 교생실습 16일차

드디어 나의 수업시연 날이 되었다. 전날부터 긴장이 되어 새벽까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한 번 수업 시연을 연습하고 학교로 출근하였다.

나이가 있다 보니 '못하면 더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고, 부족함 없이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하니 긴장이 더 크게 밀려왔다. 예비교사로서 하는 수업 시연도 이렇게 떨리는데, 실제 교사가 되어 매일 학생들 앞에 선다면 얼마나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업 시연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수업 시연 시간이 다가왔고, 여러 준비를 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오늘따라 모니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는 중요한 부분만 판서하려고 계획했지만, 상황상 거의 모든 내용을 판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수업은 멈출 수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시연을 시작하다. 처음에는 걱정이 컸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니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판서도 예상보다 잘 이어졌고, 학생들도 수업 흐름을 따라와 주었다. 물론 글씨가 뺄뺄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수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업은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 가야 한다는 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는 교장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께서 교생실습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그 자리에서 선배 교사들의 값진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씀들은 나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늘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100%를 다해 꿈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생실습과 수업 시연을 통해 나의 마음이 분명해졌다.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경험은 나에게 교사의 꿈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두려워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로 교사의 길을 준비해 나가고 싶다.